

병을 가려서는 안된다' '아플 때마다 보장해야 한다' 처럼 폭넓은 보장과 반복 보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두 편 밀티로 방영되고 있는 이번 광고는 많은 정보 전달로 자칫 지루하고 심각해질 수도 있는 다이렉트 보험광고의 틀을 과감히 무너뜨렸다. 여러 흥행작의 독특한 조연으로 활약 중인 영화배우 백윤식씨와 누가 들어도 기분좋은 최화정의 목소리 출연이라는 모델 선정과 모델의 캐릭터를 잘 살린 내용 구성으로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있다.

[새광고] CJ 햇반



아역배우 서신애가 맛갈스런 연기로 햇반 새광고에 등장했다. '갓 지은 밥맛'의 슬로건 아래 CJ 햇반의 새 얼굴이 된 서신애가 전하는 새 광고 '맛있는 밥' 편은 조리밥의 치열한 가격경쟁과 판촉경쟁 속에서 햇반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햇반의 강점인 '맛' 자체에 무게를 두었다. 또한, '밥이 맛있으면 열 반찬이 소용없다'는 밥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반영하여 '밥 맛'에 대한 강조를 극대화했다. 한편 맛있는 햇반을 잘 표현하기 위해 일반 촬영용 카메라가 아닌 마이크로 렌즈를 장착한 카메라로 촬영해

햇반 밥알의 모양과 빛깔을 맛깔 나게 잘 표현해냈다고 전해진다.

[새광고] 동화약품 까스활명수



동화약품공업은 대한민국 대표 소화제 브랜드 '까스활명수'의 새로운 광고인 '이윤지' 편을 통해 더욱 젊고 새로워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동시에 주소비층을 젊은세대로 확장하기 위한 신선한 시도를 하고 있다. '까스활명수'의 신규 광고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증장년층을 넘어 이제는 젊은 세대도 소화엔 역시 '까스활명수'라는 인식을 형성시키고, 그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까스활명수의 브랜드 재활성화(Revitalization)를 위한 마케팅 성과는 매출추이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생산실적 기준으로 지난 2000년 이후 매출은 매년 5~10%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461억원의 매출을 올려 2005년 대비 20%에 가까운 높은 성장율을 기록했다.

[새광고] 카스맥주 특' 캠페인 내일을 향해 쏴라'

도전과 열정으로 신세대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카스 맥주가 새광고를 선보였다. '내일을 향해 쏴라'라는 그들만의 시나리오가 영화사에서 제작 거절을 당하자, 포기하지 않고 젊은이들 스스로 직접 영화를 만들고, 거리의 빌딩 벽면에 영화를 개봉해 비록 정식은 아니지만 영화를 만들고픈 그들의 꿈을 이룬다는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항상 특 쏘는 젊은이들의 개성과 열정을 브랜드의 대표 이미지로 끌고 가는 카스는 빅모델에 여전히 의존하지 않고, 신인 모델들로만 구성하여 더욱더 신선한 브랜드 이미지를 지속하고 있다. 더불어, 제품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제품과 함께 하는 카스



의 문화를 보여줌으로써 카스 자체가 젊은 문화의 대표 상징으로 심어지고자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00년도부터 시작하여 8년째 일관된 '특' 캠페인을 전개하는 카스 맥주는 이번에도 모델전략과 광고음악 등에서 '특' 컨셉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몇 개월 단위로 모델이나 광고 컨셉이 자주 바뀌는 주류업계와 광고업계에서는 진정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새광고] 하나금융그룹, 진도연, 송강호 칸의 영광 재현

하나금융그룹은 그룹 내 하나대투증권과 HFG IB(Hana Financial Group IB)증권으로 변경된 사명을 알리기 위하여 진도연과 송강호를 주연으로 하는 '시상식 발표' 편 광고를 선보이고 있다. 진도연과 송강호가 칸으로 연상되는 시상식에서 하나금융그룹내의 양대 증권사의 사명 변경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광고는 아직 채 가라앉지 않은 칸 여우주연상 수상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 하나금융그룹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주목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의 이강휴 팀장은 "하나금융그룹은 소비자들에게



사업부문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투자증권은 하나대투증권으로, 하나증권은 HFG IB(Hana Financial Group Investment Bank)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하기로 하였다"고 말하고, "특히 전문 역량과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여 상승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새광고] 대성셀틱가스보일러, 현영과 함께하는 가스비 다이어트'



S라인 콘덴싱 기술로 최대 35%까지 가스비 절감 효과가 있는